

구문문법의 원리와 쟁점들*

- 독일어와 영어의 논항구조를 중심으로 -

성 상 환**

【목차】

1. 도입
2. 구문이란 무엇인가?
3. 구문문법의 논항구조
 - 3.1. 전형적인 구문의 논항구조
 - 3.2. 구문의 존재에 대한 증거
 - 3.3. 수여동사구문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
4. 마무리말
 - 참고문헌
 - Zusammenfassung

1. 도입

본 글에서는 구문문법의 관점에서 독일어와 영어의 특정구문들을 중심으로 투사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생성문법과 생성문법에 기반을 둔 이론들이 주창하는 ‘서술어에 기반을 둔 논항구조의 분석의 문제점들’을 기존의 문헌들을 통해 비판적으로 정리하고 문법적 구문이 실재한다는 경험적 증거들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32-A00173).
본 논문의 독일어예문들을 모어화자로서 검토해 주신 서울대 독어교육과 토비아스 슐 Tobias Scholl 교수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독어교육과 (sseong@snu.ac.kr)

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또한 영어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논의들에서 더 나아가 독일어에서 구문이 어떻게 영어와는 상이하게 실현되는가를 비판적으로 제안해 보고자 한다. 주로 영어에서 논의가 진전된 이 분야의 연구는 독일어권에서 최근에 비로소 다루어지기 시작했고 특히 독일어와 영어를 비교하는 연구들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다(Fischer & Stefanowitsch 2007; Wildgen 2008; Boas 2013 참조). 또한 한국의 독어학에서 구문문법에 관한 연구는 이론이나 외국어습득이론분야에서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영어에 관한 국내의 연구로는 한국어모어화자들에게 대한 영어습득이론연구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며 석/박사논문들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성민창 2012; 나양은 2014).

문장의 의미에 관한 문법이론들은 문장의 의미와 그 해당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들이 나타내는 의미사이의 관계를 기술한다. 문장의 의미에 관한 전통적인 구성적 이론 *compositional theory*에서는 단어의 논항구조에 대한 의미적, 통사적 요구사항은 해당 단어가 통사적 핵을 구성하는 통사구절의 의미적, 통사적 유형을 예측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어휘적 투사 원리’ *principle of lexical projection*라고 알려져 있는데, 단어들은 해당 단어들이 요구하거나 받아들이는 보족어나 부가어, 한정어 등의 유형을 상세화함으로써 잠재적인 문법적 자매관계를 제약한다고 볼 수 있다(Sag et al. 2003, 4장 참조).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투사 *projection*를 기반으로 한 문법모델에서는 실체 *entity*나 사건 *events*, 혹은 속성 *property*과 같은 개념들은 전적으로 개별 단어들을 통해 표현된다(Sells 1985, 33-34). 통사상의 결합규칙들 *PS-Regeln*이 단어들과 단어들에 종속된 요소들을 구나 구절 *phrase*로 결합시키며 구는 술어나 명제와 같은 복잡한 개념들을 나타낸다(Sells 1985, 11-12; Haegemann 1994, 2장 참조). 이러한 단어에 관한 결합규칙들은 단어들이 결합된 구조에 개념적, 혹은 의미적 내용을 추가로 더해 주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단어들이 결합될 가능성을 추가로 변화시키지도 않는다. 이와 같이 투사를 기반으로 한 문법모델에서는 문장들이 의미를 띄게 되지만 문형들 *sentence patterns* 자체는 의미를 갖지 못한다. 문장의 의미에 관한 투사기반 문법모델들은 원리와 매개변인 *principles and parameters*에 기반을 둔 통사 모델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Chomsky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제시한다

(Chomsky 1989, 43; Michaelis 2006, 73에서 재인용):

[a] language [is not] a system of rules, but a set of specifications for parameters in an invariant system of principles of [universal grammar], and traditional grammatical constructions are perhaps best regarded as taxonomic epiphenomena - collections of structures with properties resulting from the interaction of fixed principles with parameters set one way or another.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언어의 통사적인 문형은 해당 언어의 문법에 의해서 허용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통사적 문형들은 단지 보편적인 universal 제약과 개개의 언어에 특수한 language-particular 제약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기인한 인공적 산물 artifacts일 따름이다. 구문문법 CxG은 부분적으로 위에서 기술한 환원주의적인 통사론적, 의미론적 입장을 거스르는 태도를 취한다 (Croft 2007, 463-470). 동시에 구문문법은 문법적 분석에 대한 전통적인 분류법적 방식으로서의 회귀를 대변한다(Michaelis 2006, 73). 구문문법의 주창자들은 문법적 구문들 grammatical constructions의 산물이라는 것 이외에는 설명되어 질 수 없는 ‘형식과 의미해석’에 관한 제약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시도해 왔다(Fillmore & Kay 1995). 이러한 문법적 구문들은 생산성 productivity과 내부적인 복잡성 internal complexity의 정도가 상이하게 결부된 ‘형태와 의미의 결합쌍들’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형태(형식)와 의미가 문법적인 짝을 이룬 경우로 파악하면 된다. 구문문법에서 문법은 이러한 형태와 의미의 결합쌍들의 구조화된 목록 structured inventory이라고 할 수 있다. 통사이론에 대해 이러한 견해를 취하는 학자들의 논의는 Kay & Fillmore 1999, Goldberg 1995, 2002, Michaelis & Lambrecht 1996, Michaelis & Ruppenhofer 2001, Goldberg & Jackendoff 2004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Michaelis 2006 참조).

구문문법을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하는 위의 학자들의 공통된 사고는 언어학적 모델은 원칙적으로 언어구사자들의 언어에 관한 모든 측면을 설명할 수 있어야한다는 것이고 문법적 구문 grammatical construction이 언어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이며 토대가 되는 구성요소이자 건축용 블록과도 같다는 것이

다(Croft 2007, 2장 참조). 이러한 관점은 구문 construction을 단지 미국구조주의를 계승한 ‘분류학상의 인공물’이라고 보며 문법적 기술에만 유용하고 실지 이론적인 지위나 설명력이 없다고 보는 촘스키의 해석과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것이다(Seong 2006, 398-9 참조). 특히 버클리의 Fillmore나 Kay, Lakoff 같은 학자들이 촘스키를 위주로 한 생성문법에서 숙어와 같은 특이한 문법구조들을 의미론적 현상과 관련하여 설명하지 못하는 사실에 반응하면서 구성적 모델에 입각한 환원주의적인 방법론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Croft 2007, 467).

2. 구문이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구문 Konstruktion이란 무엇인가? Goldberg(2006, 5)에 따르면 구문이란 형식과 의미(기능)로 이루어진 짝인데 학습을 통해 존재한다고 본다. 특히 어떤 언어적인 문형이 존재한다고 할 때 그 해당 문형의 형식과 기능의 일정 부분이 그 문형을 구성하는 하위구성부분이나 혹은 실재한다고 인정되는 다른 구문들로부터 엄격히 예측가능하지 않는 한 이 문형은 구문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Goldberg의 이러한 관점에서는 문법적 분석이나 기술의 모든 차원에서 구문에 대해 논할 수 있다. 즉 특정 형식과 의미적 혹은 담화적 기능이 학습을 통해 결합되어 쌍으로 존재하는 경우를 들 수 있고 이러한 구문들은 형태소나 단어, 숙어, 혹은 부분적으로만 채워지거나 혹은 완전히 채워진 어휘적 문형들이 될 수도 있다(<표 1> 참조).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심지어 가장 일반적인 통사구문에도 의미 해석에 대해 상응하는 일반적인 규칙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규칙은 상징적인 연결단위 symbolic units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구문의 구성방식은 특정한 형태와 구체적인 관습적인 의미를 결합시킴으로써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Boas 2010, 3 참조)

그림 1. The symbolic structure of a construction (Croft 2001,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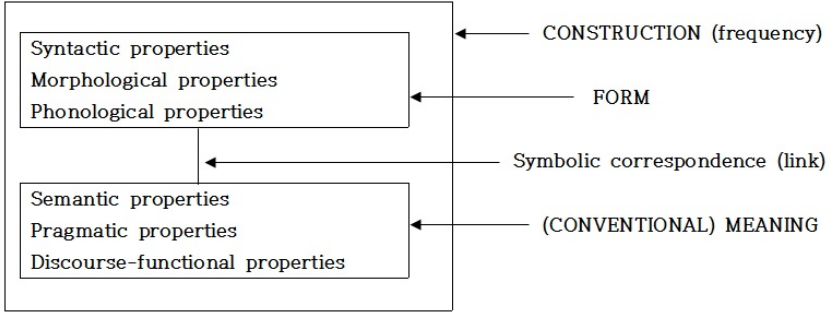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구문의 형식은 다양한 종류의 언어적으로 연관된 정보들, 즉 통사적, 형태론적, 음운론상의 정보들과 연계될 수 있다. 구문의 형식/형태적인 부분은 상징적으로 대응하는 연결규칙을 통해 해당 구문의 의미적 부분과 연결된다. 여기에서 ‘의미’라는 용어는 구문의 기능과 연계된 모든 관습적인 측면을 포함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The tiger killed rabbit again*이라는 문형에서 *rabbit*이라는 의무적인 논항이 적절한 담화적 문맥에서 생략이 되거나(Goldberg 2002) 특정한 구문이 어떤 화용론적 상황에서 놀라움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경우 등도 구문에 포함이 된다는 것이다(예: *What’s that fly doing in my soup?* Kay and Fillmore 1999). 구문이라는 것이 학습이 되어 존재하는 형식(형태)과 의미의 쌍이라는 사고는 문법의 틀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몇 가지 함축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Boas 2013, 2장 참조).

Goldberg(2006, 18)가 주창한 ‘it’s constructions all the way down’(온통 구문들이다)이라는 언명은 구문문법에서 구문의 일차적인 지위를 가장 잘 규정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일단 내부적인 합성이나 결합가능성과 같은 특정 용례 Gebrauch에 관한 모든 사실들이나, 혹은 연구의 대상이 되는 문형의 의미를 어떤 독립적으로 동기부여가 된 원칙들이나 이미 알려져 있는 구문들로 연결하여 모두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이전과는 다른 독립적인 구문을 상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Boas 2013, 2장 참조). 새로운 구문이 받아들여지면 그림 1에 나타나듯이 그 해당 구문은 특정

한 형태와 구체적이며 관습적인 의미사이의 결합이라는 구문에 관한 동일한 일반적인 구조양식을 따른다는 것이 중요하다. 아래 <표 1>은 영어와 독일어에서 존재 가능한 다양한 구문들의 종류를 보여준다.

<표 1> 크기와 복잡성에서 다양하게 존재하는 구문들의 종류 (Goldberg 2006, 5; Fischer & Stefanowitsch 2007, 6)

형태소	e.g. pre-, -ing/ 독일어의 파생- 굴절형태소, [ver-V]/Distributiv (vergeben, verschicken, verschütten, verstreuen, verteilen oder [N-e]/PLURAL
단어	e.g. avocado, anaconda / 독일어에서 Zeichengeber 같은 복합어에서 이를 구성하는 Zeichen, geb-, Geber 같은 단어
복합어	e.g. daredevil, shoo-in/ Zeichengeber
복합어 (부분적으로 채워진 경우)	e.g. [N-s]/[N-e] (for regular plurals)
숙어 (채워진 경우)	e.g. going great guns, give the Devil his due/ sich geschlagen geben,
숙어 (부분적으로 채워진 경우)	e.g. jog <someone's> memory, send <someone> to the cleaners/ sich (scheinbar) X verhalten
연계변이적 조건문(covariational conditionals)	The Xer the Yer (e.g. the more you think about it, the less you understand)
3가 동사 (목적어 2개)	Subj V Obj1 Obj2 (e.g. he gave her a fish taco; he baked her a muffin)/ die Ditransitivkonstruktion (NP _{NOM} V NP _{DAT} NP _{ACC}) -> 예) Hans gab Maria ein Buch)
수동 구문	Subj aux VP _{pp} (PP _{by}) (e.g. the armadillo was hit by a car)

Boas(2010; 2013)의 연구에 따르면 구문들은 또한 구문들의 크기나, 복잡

성, 그리고 의미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예를 들어 특수한 종류의 구문에 있어서 내용을 담지하고 있는 단어들은 그 단어들이 Fillmore(1982)의 틀의미론 Frame Semantics의 차원에서 기술되고 분석될 수 있는 고도로 상세한 대상이나 상황들을 기술할 경우 그 단어들은 전형적으로 특히 풍부한 의미를 띠 수도 있다고도 본다. 또한 구문개념은 품사, 문법적 관계사와 같은 추상적인 문장론적 범주들도 포함한다고 한다(그러나 모든 구문문법의 학파가 이를 따르지는 않는다). 모든 구문문법 학파들은 구문들이 서로 결합할 수 있고 실제로 단어들이 표현될 때에는 이런 많은 구문들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실제로 *Maria schickte Hans einen Brief* 라는 문장에서 주어-술어-구성(SUBJ PRED), die Ditransitiv-konstruktion(3가 동사구문/목적어 2개), 과거-구문, 두 개의 서로 다른 명사구 구문들(예를 들어 $[_{NP} N_{Eigename}]$ und $[_{NP} Det_{ACC} N]$ 의 형식), *Maria, Hans, Brief, ein-, schick-* 와 같은 어휘적 구문들이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Fischer & Stefanowitsch 2007, 7 참조).

3. 구문문법의 논항구조

3.1. 전형적인 구문의 논항구조

구문문법은 논항구조의 문형(즉 논항구조구문: argument structure construction)이 어휘적 논항을 취하는 서술어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입장을 취한다(Goldberg 1995).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목적어를 두 개 취하는 구문(3가 동사)이나 사역이동구문, 혹은 Way-구문(Kay and Fillmore 1999 참조)과 같은 구문들은 동사의 본래 의미에 추가적인 논항들을 공급할 수 있다고 본다(Wildgen 2008, 6장 참조). 또한 구문들을 예시하는 하위부류의 단어들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의미를 지닌 구문들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핵심적인 논점 중의 하나는 해당 절을 구성하는 통사부와 의미부가 해당 절의 본동사에 명시된 사양 specification으로부터만 독립적으로 투사된다는 기존의 주장을 피하기 위함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Croft 2007, 466-4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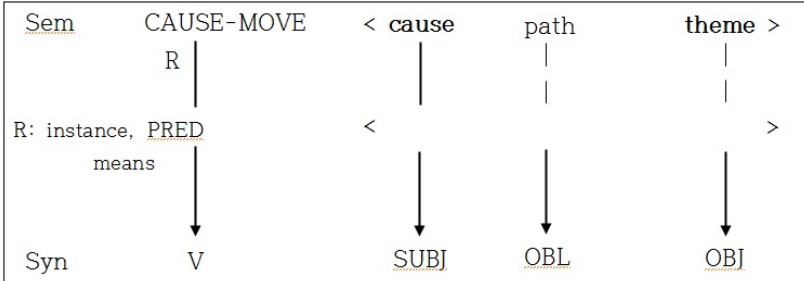
Boas 2013, 2장 참조). 이러한 관점을 가지게 되면 동사가 다음과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타당해 보이지 않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경우를 상정할 필요도 없다는 장점이 있다.

- (1) a. They laughed the poor guy out of the room.
- b. Frank sneezed the tissue off the table.
- c. Mary urged Bill into the house.

(Goldberg 1995, 152; Boas 2013, 235-6에서 재인용)

(1)의 문장들은 투사적 원리에 입각해서 보면 합성적으로 쉽게 설명되어질 수 없는 경우들인데 laugh나 sneeze 혹은 urge란 동사들이 독립적으로 사역-이동적 의미를 부호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구문문법에서 이러한 동사들은 이 동사들로 하여금 논항구조구문인 사역이동구문의 의미와 통합되거나 혹은 융합되도록 허용해 주는 구체적인 어휘적 의미정보와 연계되어 있다고 본다(Boas 2013, 236). 이러한 융합은 반대로 (1a)의 the poor guy와 out of the room과 같은 동사 이후에 나타나는 구성성문들을 허용해 준다. 즉, (1)의 동사들은 자신들의 동사적인 기본 의미로서 문장의 의미구성에 실제로 기여하지만 문장의 의미와 자체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은 ‘사역이동구문’이라는 것이며 따라서 이 사역이동구문이 사역이동의 최종적인 의미해석을 제공해 주는 추가적인 논항들의 구성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표 2>는 사역이동구문에서 구문역 constructional roles을 포함하는 구문적 의미와 자동사인 정동사를 구성하는 참여자역을 포함한 동사적 의미가 어떻게 구문문법에서 사역이동적 해석을 형성하기 위해 서로 융합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Goldberg 1995, 163; Boas 2013, 2장 참조).

<표 2> 사역-이동 구문(Goldberg 1995, 163)



Boas(2013)에 따르면 <표 2>에 나타난 사역-이동구문은 세 가지 다른 층위로 구성되어 있다. 즉 전체 네모상자의 첫 번째 선에 있는 내용은 본 구문의 자체적 의미(Sem)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문(구문역)의 의미적 논항들을 목록으로 나열하고 있고 상호간의 의미적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사역-이동구문은 ‘X CAUSES Y TO MOVE Z’ 라는 의미와 연계되어 있다. 여기서 의미역들과 서술어의 역배열 사이에 존재하는 실선은 의미역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동사적 참여자역과 융합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반면에 점선으로 이루어진 부분은 해당 구문이 추가적인 참여자역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2>의 구문에서 두 번째 선인 중간선은 동사의 참여자역들이 융합해서 들어갈 수 있는 열린 자리들을 포함하고 있고 <표 2> 네모상자의 3번째 선은 결합된 동사구문의 의미를 구성하는 의미적 논항들이 명시적으로 통사적으로 실현된 것을 목록화하고 있다. 굵은 선으로 표시된 역할(roles)은 관심을 끄는 주요 논항들을 가리키는데 동사적 의미구성에 참여하는 실체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들은 특별히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면서 주어진 장면에서 초점으로서 기능하며 의무적으로 접속되는 실체라고 할 수 있다(Boas 2013, 2장).

그러나 위의 (1)에 나타난 영어문장들에 대한 독일어대응구문들은 영어와 동일한 구조들을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 (2) a. Sie vertrieben den Armen mit ihrem Lachen aus dem Zimmer.

- b. ?Frank nieste das Taschentuch vom Tisch.
 c. Mary drängte Bill ins Zimmer.

(1)에 대한 독일어 대응구문들은 (2a)에서 보듯이 영어와 같은 자동사구문으로 대체되어질 수 없고 결과구문이라고 할 수 없다(?*Sie lachten den Armen raus aus dem Zimmer*). 독일어 (2b)의 경우 사실 niesen 동사는 기술적으로 타동사가 아니지만 독일어의 경우 영어처럼 문장으로 성립되며 (2c)는 타동구문으로 영어의 대응구조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2b)의 경우를 아래 (3)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 (3) a. niesen: < Nieser >
 b. ?Frank nieste das Taschentuch vom Tisch.

(3a)는 구문문법에서 어휘가 등재될 때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niesen이라는 동사가 유일한 참여자논항, 즉 der Nieser와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때 동사는 특정한 의미의 틀 semantic frame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Fillmore 1982). Fillmore식의 틀의미론적 정보 frame semantic information는 주어진 어휘요소와 연계되어 다양하게 드러나는 의미들을 포착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세계에 관한 지식, 문화적 지식이나 경험, 믿음을 지칭하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본다. 이것은 객관적인 진리조건으로부터 언명들의 의미를 파생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는 이론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구문문법에서 어휘로 등재되는 동사들은 틀의미론적 정보를 나타내는 참여자역들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niesen이라는 동사가 <표 2>에 나타난 사역-이동구문과 융합할 경우 동사 niesen은 행위자로서의 Nieser 역(niesen: < Nieser >)을 제공하는 반면에 구문 자체는 ‘대상’ Gegenstand과 ‘목적지’ Ziel의 역을 동사의 의미에 부여하는 것이다(Boas 2013에서 제시한 영어구문분석 참조). 즉, 독일어 동사 niesen은 일종의 수단을 구체화시켜 주는데 이때 사역과 이동의 관계가 이루어지며 해당 구문은 의미의 나머지 부분을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2b)를 논리적으로 풀어 쓸 경우

'Franks Niesen verursachte, dass das Taschentuch vom Tisch fiel' (Frank nieste und deshalb fiel das Taschentuch vom Tisch) 이 된다. 이때 영어처럼 'Frank caused the napkin to move off the table by sneezing'과 같은 구조가 될 수 없는 것은 독일어의 대응구조 (*Frank verursachte ...*)가 의미상 행위자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우연히 발생하는 행위자의 재채기와 의미적으로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독일어모어화자가 (3b) 문장을 문법적으로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도 이러한 관점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또한 이런 방식으로 동사가 구문들과 융합 혹은 결합하는 일반적인 문법적 기제는 다른 종류의 논항구조구문들에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겠다. 다음의 추가적인 구문들을 고려해 보자.

- (4) a. They laughed their way into the meeting (Way-Construction)
 b. Joe baked Miriam a cake (Ditransitive Construction)
 c. Kim painted the brush to pieces (Resultative Construction)
 (Boas 2013 참조)
- (5) a. Sie lachten auf dem Weg zur Besprechung
 b. Sie bahnten sich ihren Weg mit Lachen
 c. ?Sie lachten sich ihren Weg zum Treffen
 d. Joe backte Miriam einen Kuchen
 e. Kim benutzte den Pinsel so oft/sehr, dass er auseinander fiel
 f. Kim malte mit dem Pinsel bis dieser in Stücke brach
 g. ?Kim malte den Pinsel in Stücke

(4)의 3가지 서로 다른 구문들도 동사만으로 문장의 논항구조가 투사된다는 관점에서는 설명이 전혀 되지 못하는 예들이라고 할 수 있다. (4a)의 구문의 경우는 주어가 전치사구에 의해 부호화된 경로 path를 따라 움직이는 방식의 의미를 수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본래 자동사인 'laugh'는 직접목적어와 방향성/목적지를 나타내는 전치사구를 가진 이동동사 motion verb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 구문은 $[NP_a[V NP_a's\ way\ OBL]]$ 의 일반적인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구문문법의 전통에 따르면 구문에 의해 숙어적인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다(Fillmore and Kay 1995; Goldberg 1995; Croft 2007, 467). 독

특한 숙어적 표현의 전형적인 용례가 되는 (4a)와 의미적 대응관계를 보여주는 (5a, 5b)에서 독일어 대응구조는 주어의 동작이 문장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들로부터 정상적인 어휘적 의미부를 통하여 파생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5c)는 독일어 'lachen' 동사가 타동사적 구문과 온전히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4b)는 Miriam이 의무적인 보족어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4c)의 경우는 결과구문 Resultativkonstruktion으로 (5a)의 독일어의 의미적 대응구조와는 다르지만 독일어에서도 'Anna tanzte ihre Schuhe zu Fetzen' 이라는 결과구문에서 보듯이 관계구 [ihre Schuhe]와 서술어구인 [zu Fetzen]이 상호간에 서로 구속하며 하나의 문장성분(Angabe)을 이루는 경우를 예시로 들 수 있다(Duden 2009, 791). 다만 (5e-g)에서는 독일어동사 malen이 영어의 paint 동사보다 목적어와 결합할 때 선택적 제약 selektionale Beschränkung이 더욱 엄격함을 알 수 있다(Seong 2001 참조). 즉 결과구문과 관련 독일어의 해당구조에 비해 영어의 구조가 훨씬 구문의 어휘적 구성에서 느슨하며 문법관계가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기존의 구문문법학자들의 논의에서 제대로 심도있게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이며 구문의 어휘적 하위범주화와 관련하여 보다 정밀하게 분석될 필요가 있다.

3.2. 구문의 존재에 대한 증거

동사부와 의미부의 결합방식에 관한 문법기술로서 어휘기능문법 LFG(Bresnan 2001)이나 핵중심부구조문법 HPSG(Pollard and Sag 1994) 그리고 Role and Reference Grammar(Van Valin and LaPolla 1997) 와 같은 투사에 기반을 둔 문법이론들은 동사를 중심으로 한 논항구조에 초점을 두는데 그 이유는 '동사에 대한 의미상의 필수요소'와 '해당 동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절의 의미' 간의 관계는 고도로 투명하다고 보기 때문이다(Sag & Wasow 1999, 382; Michaelis 2006 참조). 예를 들어,

(6) We gave the apple to her.

(6)과 같은 문장은 ‘양도’ transfer의 사건을 나타내는데 행위자, 선물 그리고 수여자가 의미역으로 서로 관계되어 있다. 특히 동사 give가 양도의 장면 scene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동사는 세 개의 참여자의 존재를 요구한다.

어휘적 투사 lexical projection에 기반을 둔 문장의미에 관한 모델들은 통사론과 의미론의 점점 interface에 대한 직접적인 단순한 표상을 드러내어 준다: 즉, 동사가 문장이 의미하는 바를 결정해주는 반면에(the verb determines what the sentence means) 통사적 규칙들은 문장이 어떻게 뜻을 담지하게 되는가를 결정해준다고 볼 수 있다(syntactic rules determine how it means) (Michaelis 2006, 74). 예를 들어, (6)에서 동사와 동사의 뒤를 잇는 두 논항은 함께 VP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것은 투사원칙에 따르면 NP(subject)와 결합하여 문장을 구성한다(EPP: Extended Projection Principle, Haegeman 1994, 68). 이러한 문장구성성분을 구성하는 규칙이외에 통사론자들은 연결규칙 linking rule이라는 구체적인 실현규칙 realization rule이라는 것을 제시했는데 이러한 연결규칙은 행위자 agent나 수동자 patient 등의 동사의 개개의 의미역을 주거나 목적어와 같은 유일한 문법적 역할 grammatical role에 할당하게 된다. 이러한 연결규칙은 전형적으로 교차언어적인 타당성 cross-linguistic validity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며(Bresnan 1994; Van Valin and LaPolla 1997) 주어진 동사의 의미적 논항들을 표현하기 위해 대개 한 가지 이상의 방법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대변해 준다. 예를 들어 다음의 수여동사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Michaelis 2006, 74).

(7) We gave her the apple. [Nom, V, ACC, ACC]:

수여자 논항 -> 직접목적어

이 경우 해당 동사는 상호 간에 양립 불가능한 여러 개의 연결규칙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러한 연결규칙은 동사의 기재사항 verb entry에 통사적 실현에 대한 제약을 더해 주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 때 논항역들 argument roles은 이 논항역들이 떠맡게 되는 가능한 표층적인 통사적 기능들에 대해 어휘적으로 미명세화 underspecified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Bresnan 1994, 91).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규칙들이 해당 동사와 연관된 의미역들의 배열을 더하거나,

감하거나, 변경시키지는 않는다고 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Bresnan(1994)의 처소격 도치 locative inversion와 관련 영어와 반투 Bantu언어인 치체와 Chichewa어 모두에 나타나는 ‘제시적 구문’ presentational construction에 대해 살펴보자. 아래 (8)과 (9)에 나타나는 ‘stand’ 와 같은 동사는 연계가능성 linking possibility이 하나 밖에 없으며 장소를 나타내는 논항 location argument와 대상을 나타내는 논항 theme argument 두 논항을 허용해 준다.

(8) Two women stood in the plaza.

(9) In the plaza stood two women.

이러한 동사들은 (8)을 생성해 내는 연결규칙과 일종의 도치된 문장 (9)를 생성해 내는 연결규칙 양쪽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Michaelis(2003, 168)에 따르면 다음 (10)와 같은 구조들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논항연결모델에 문제점을 보여준다.

(10) Down at the harbor there is a teal-green clubhouse for socializing and parties. Beside it sparkles the community pool (Vanity Fair, August 2001). (Michaelis 2003에서 재인용)

(10') Unten am Hafen gibt es ein blaugrünes Clubhaus für Socializing und Parties. Daneben glänzt das öffentliche Schwimmbad.

Michaelis(2003)에 따르면 Bresnan식의 접근방식에 문제가 되는 것은 동사 ‘sparkle’은 의미상 장소역 locative role이나 주제역 theme role 둘 중 어느 하나도 할당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sparkle’이란 동사는 ‘빛을 발산하다’라는 자동사 intransitive or monovalent verb of light emission이며 동시에 처소격 도치 locative-inversion 논항구조 문형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10)과 같은 예문에 대해 Bresnan(1994, 91)은 화용론상에서 요구된 ‘제시적 초점’ presentational focus이 장소-주제 locative-theme를 나타내는 논항구조에 부과되어 해당하는 기본 동사 ‘sparkle’의 논항구조에 덧입혀진 경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논항구조들’이라는 것이 단지 동사에 의해 허용되는 의미역들

을 실현하기 위한 교체 가능한 구조 alternate possibilities들이고 독립적인 형태와 의미의 짝이 아니라면 '덧입힌다' overlay라는 것의 출처 source가 미심쩍다고 할 수 있다(Michaelis 2006, 75).

투사에 기반을 둔 원리에 집착하는 접근방식은 (10)번과 같은 예문에서 덧입히기식 주제 overlay theme와 같은 특수한 임시변통적인 장치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Goldberg(1995; 2002)가 지적하듯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특별한 동사적 의미들에 대해 호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Goldberg의 논항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구문에 기반을 둔 문법모델은 다음과 같은 동사들에 핵심적인 지위를 부여한다(아래 영어예문에 대해서는 Michaelis 2006 참조. 독일어는 가장 가까운 대응물을 제시함).

- (11) Most likely they were fellow visitors, just panting up to the sky-high altar out of curiosity. 'move while panting'
- (11') Höchstwahrscheinlich waren sie Besucher, die gemeinsam kamen und sich aus Neugierde hoch zum himmelhohen Altar hechelten
- (12) When a visitor passes through the village, young lamas stop picking up trash to mug for the camera. A gruff 'police monk' barks them back to work. 'cause to move by barking'
- (12') Dieser Polizeimönch pfeift sie zurück zur Arbeit
- (12'') *Dieser Polizeimönch bellt sie zurück zur Arbeit
- (13) Although he professed to like the sweater she **knit him** for his birthday, he wouldn't wear **it** in public [...].
- (13') Obwohl er behauptet hat, den Pullover zu mögen, **den** sie **ihm** zum Geburtstag strickte, würde er **ihn** nicht in der Öffentlichkeit tragen.

Goldberg의 제안에 따르면 만약 논항구조가 순전히 절을 구성하는 동사의 어휘적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면 우리는 (11-13)에 예시된 각각의 경우에 대한 동사의 특정한 의미를 가정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11)번 문장의 경우 자동사 'pant'에 대해 '헐떡거리며 움직이다'(move while panting)라는 뜻을 가진 특수한 경우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11')의 독일어문장의 경우에도 자동사인 sich hecheln에서 전치사구와 더불어 이동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는 동사의 논항구조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12)번 문장의 경

우 ‘짓다’라는 의미의 동사인 ‘bark’에 ‘cause to move by barking’(짓음으로 누군가를 움직이게 만들다) 이라는 특수한 의미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12’)나 (1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독일어의 경우 *bellen*이라는 동사는 사람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신 동사 *pfeifen*은 주어진 상황에서 이동의 의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의미도 문형을 통해 생성되는 것이다. (13)의 경우에도 투사를 기반으로 한 문법모델에서는 영어의 ‘knit’라는 동사의 기본의미에 ‘knit something in order to give it to someone’(누구에게 주기위해 무엇인가를 짜다)라는 의미를 추가로 상정해야만 한다. 이러한 식으로 의역을 할 때 (13)의 문장의 의미가 정확히 포착이 되는 것이다. (13)에 대한 독일어 대응구조인 (13’)에서도 본래 *stricken*동사는 3격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Goldberg에 따르면 이러한 의미들은 동사를 중심으로 볼 때 특이하며 일반적인 직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급진적이며 구속받지 않는 다의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Michaelis 2003, 169). Goldberg식의 구문에 기초를 둔 논항구조의 모델에서는 동사의 의미라는 것은 통사적 맥락 전체에 걸쳐 불변이다. 위의 (10-13)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 현재 상황을 나타내는 문형들에서 사용된 동사들의 의미와 이 동사들의 투사자질 *projection properties*을 나타내기 위해 어떤 추가적으로 입력되는 표제어가 새로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신 동사들은 동사의 층위에서 연결구문들과 결합하며 이것은 일종의 사건유형 *event type*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결구문들 *linking constructions*은 동사에 의해 부여되는 의미역 혹은 참여자역 *participant roles*에 문법적 기능들을 할당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구문들은 사건유형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각각의 구문은 각 구문이 나타내는 사건유형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역 *thematic roles*들이 배열되는 것을 허용해 준다(Michaelis 2006, 75).

예를 들면, 위 (13)에 나타난 목적어를 두 개 취하는 구문을 살펴보자. Goldberg(1995, Chap. 2)에 따르면 이 문형은 NP V NP NP의 형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건유형들의 배열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실제 일어난 양도’(전이) *actual transfer*, 혹은 ‘의도된 양도’(전이) *intended transfer*, ‘비유적 양도’ *metaphorical transfer*, 그리고 ‘양도(전이)의 부정’ *denial of transfer* 등의 사건유형들을 포함한다고 본다. 그리

고 목적어를 두 개 취하는 구문이 지정하는 사건유형으로 인해 이 구문은 세 개의 의미역을 허용하는데 즉, 행위자와 대상 theme, 그리고 수여자역 recipient role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구문에 의해 허용된 의미역들의 집합은 동사에 의해 허용된 의미역들의 집합, 즉 동사의 결합가 Valenz를 정확히 포함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반드시 주목해야 할 사항은 주어진 구문이 동사의 결합가를 증가시킨다고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13)번에서 사용된 동사 knit는 ‘무엇을 만들어 내다’라는 ‘창조의 동사’ verb of creation라고 할 수 있는데(Levin 1993 참조) 이 동사는 전형적으로 두 개의 의미역, 즉 행위자와 대상역 theme을 허용한다. 그러나 (13)의 경우에는 3개의 의미역이 나타나는 바 이 경우에는 이 동사의 결합가가 양도(전이, 이동)의 동사 verb of transfer의 결합가로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유사한 입장은 Fischer & Stefanowitsch 2007, 8; Wildgen 2008, 164 참조). 이는 목적어를 2개 갖는 이 동사가 속해 있는 구문 자체가 일종의 ‘양도(이송, 이동)의 사건’ an event of transfer을 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성문법에서 주로 받아들이는 투자를 기반으로 한 논항구조에서는 동사적 논항구조가 통사적 맥락의 함수 function로서 변화할 수 없고 고정되어 있는 반면에, 구문을 기반으로 한 문법모델에서는 결합가증가라는 것은 의미구성에 있어서 일종의 예측 가능한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문을 기반으로 한 문법모델은 의미구조의 파악에서 동사를 유일한 출처라고 보는 관점이 아닌 동사와 구문의 두 가지를 출처로 간주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구문의 개념은 모든 관습화된 언어적인 표현들을 포괄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것들은 여러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 언어적 표현들의 형태가 분명히 의미와 기능과 함께 결합하여 쌍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고 이 구문의 의미구조는 분명히 비구성적 non-compositional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knit’ 동사를 중심으로 한 형태가 언어의 다른 형태로부터 파생된다고도 할 수 없다(Fillmore & Kay 1995, 1999 참조).

그렇다면 동사와 구문이 의미적으로 기여하게 되는 부분이 어떻게 결합될 수 있나? Goldberg가 제안하는 바에 따르면 이는 융합과 연관이 있다(위의 예문 [1]을 중심으로 한 논의 참조): 이는 동사의 참여자역들과 구문에 의해 허용되는 의미적으로 양립 가능한 의미역이 동일할 때이다(Goldberg 1995,

50-66). Goldberg는 동사와 구문사이에 유효한 제한된 의미적 통합관계의 집합을 가정한다. 이러한 통합관계의 예가 (7)과 같은 경우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문장성분들의 어순은 명시되지 않는다(예를 들어 Cleft construction: *It was the apple that we gave her*). 여기에서 동사 ‘give’가 가리키는 사건과 결국 상응하는 give 동사의 결합가는 목적어를 두 개 가질 수 있는 동사구문의 사건과 동일한다. 이 동사구문은 일종의 ‘전이(이송, 이동)의 사건’ a transfer event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통합적 관계들은 결합가 증가를 포함하고 있다(Michaelis 2003, 180-181). 이러한 관계들 가운데 (11)에 나타난 ‘방식의 관계’ manner relationship를 들 수 있는데 ‘pant’라는 동사는 지시된 동작의 사건이 진행되면서 일어나는 행동을 가리킨다고 볼 때 지시된 동작의 사건이 해당 구문이 지칭하는 바가 되는 것이다. 이 경우 본래 논항을 하나만 가지는 ‘pant’라는 동사의 결합가는 지시된 동작사건의 결합가로 증가되는데 이 결합가는 행위자 agent와 목표논항 goal argument을 포함하게 된다(vgl. Goldberg and Jackendoff 2004, Michaelis 2003, 169). Goldberg가 제안한 추가적인 통합관계는 (12)에 예시된 수단의 관계이다: ‘짖는다’(barking)는 짖은 주어진 사건상황에서 ‘수단’을 나타내는데 이것에 의해 행위자는 대상이 되는 논항이 움직이는 것을 유발시킨다고 볼 수 있다. (11)의 ‘pant’의 경우처럼 논항이 하나밖에 없는 동사 ‘bark’의 결합가는 해당 구문의 결합가로 증가되었고 (12)의 구문은 야기된 움직임을 나타내는 사건 event을 지칭하며 ‘bark’라는 동사의 원래 결합가에 대상을 나타내는 논항과 방향을 나타내는 논항(barking them back to work) 둘 다를 더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독일어의 대응구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독일어에서는 동사(vgl. bellen vs. pfeifen)의 하위범주화와 관련 영어에 비해 선택적 제약이 더욱 엄격함을 알 수 있었다.

3.3. 수여동사구문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

3.2.절에서 다룬 골드버그식의 NP V NP NP의 형식에 관한 논의는 독일어의 상응하는 구조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 같지는 않다. 골드버그의 관점을 비판적으로 살펴보자.

- (14) a. Peter hat mir ein Buch geschenkt.
 b. Sie mäht der Oma den Rasen. (Dativus commodi)
 c. Der Junge zerbricht ihr einen Teller. (Dativus incommodi)
 d. Dem Jungen zerbricht ein Teller.

(14a)의 경우 이것은 Goldberg에서 논의된 NP V NP NP 의 형식으로 수여 동사에 기반을 둔 수여구문 ditransitive Konstruktion의 구조를 갖고 있으나 (14b)나 (14c)와는 비교했을 때 3격 목적어의 위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어 문형의 구조상 (14a-c)의 문장들은 외형상 동일한 구문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영어와는 달리 독일어에는 가장 핵심적인 수여동사구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추가적인 의미를 지니는 NP V NP NP의 형식이 존재하고 있고 다만 다양한 의미적 구조들이 형식상 동일한 문형을 통해 서로 공존하고 있는 듯하다. 또한 (14b)와 (14c)가 의미상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3격을 포함하는 듯하지만 (14c)의 구문이 반드시 주어에게 부정적인 손해를 입힌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vgl. *Polterabend*, S. Roberts, p. c.). 즉, 결혼식 전 일부러 가까운 지인이 접시를 깨뜨리는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14c)와 (14d)가 3격의 의미에서 주로 손해나 피해의 의미를 나타내는 역접격 Adversativ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구문문법에서는 행위자 주어와 비교적 중립적인 3격을 담지하는 (14b)와 (14c)가 같은 그룹으로 분류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즉 독일어의 NP V NP NP 구조를 구문문법에 의해 기술하려고 시도할 경우 Goldberg식의 영어의 수여구문의 기술은 지극히 좁은 의미영역을 정의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독일어의 NP V NP NP 구조는 많은 경우 영어의 해당구조와 대응될 경우 PP로 나타날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이는 위에서 보았듯이 독일어의 3격이 손해나 피해의 의미를 나타내는 역접격의 경우일 때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즉 독일어의 수여구문의 경우 3격의 다양한 의미관계의 존재로 인해 영어에서는 찾을 수 없는 다양한 의미적 관계들의 부분집합이 수여구문 내에 상세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현대어와 비교하여 고대어나 고대고지독일어 등 이전의 게르만어 역사언어들에도 적용이 된다(Havers 1911, 274-300 참조. 예를 들어 공감을 나타내는 3격 der sympathische Dativ이 보다 활성화되었던

단계).

LFG나 HPSG와 같이 소위 통합문법 Unification grammar은 일반적인 형식화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구문문법은 동사구문의 결합을 형식적으로 나타내는 절차를 받아들인다. Michaelis(2005, 50)에 따라 이러한 과정을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의 슬라이드가 또 다른 하나의 슬라이드 위에 겹쳐놓은 것으로 기술할 수 있다. 만약 각각의 슬라이드위에 정보가 쓰여져 있다면 슬라이드가 겹치는 것에 대한 제약은 다음과 같이 기술될 수 있다: 어떤 슬라이드이던지 또 다른 슬라이드위에 놓일 수 있는데 다만 각각의 슬라이드위에 있는 모든 정보가 서로 드러나 보이거나 비추어져야 한다는 전제조건하에 그렇다는 것이다. 서로 모순되는 세부사항들은 흐릿한 것으로 나타날 것이고 이것들은 관독이 불가능하며 단일화 혹은 통합이 실패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마무리말

구문문법은 현재 하나의 통합적 언어 이론이 아닌 모든 자연어는 기호(형태-의미쌍)로 존재한다는 인식아래 연결되는 여러 이론들의 집합체로 볼 수 있다. 이 이론은 한 언어의 구조를 기술할 때 이러한 문법적 기술은 전적으로 구문이라고 간주되는 언어적 기호들의 목록으로 부터만 행해져야 한다고 본다. 이때 통사부와 의미부를 구분한 후 적용하는 변형규칙이나 특정한 원리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특히 구문문법은 이러한 인식을 어휘론에 제한하지 않고 다른 문법이론들과 달리 통사론에까지 확장했다. 인간의 언어시스템은 어휘부에서부터 관용적, 숙어적 결합을 거쳐 추상적인 문법구조에 이르기까지 일종의 연속체로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기호학에서 그러하듯이 언어기호의 개념에 적합하게 구문문법에서는 문법구문은 형태와 의미가 직접 함께 연결된 실체로 파악한다. 또한 문법구문도 결합가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독일어와 영어의 특정구문들을 중심으로 투사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생성문법과 생성문법에 기반을 둔 이론들이 주창하는 ‘서술어에 기반을 둔 논항구조의 분석의 문제점들’을 기존의 문헌들을 통해 정리했고 문법적 구문이 실재한다는 경험적 증거들을 비판적으로 정리

해 보았다. 특히 영어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논의들에서 더 나아가 독일어에서 구문이 어떻게 영어와는 상이하게 실현되는가를 추가적으로 제안해 보았고 이러한 실현 가능성은 차후연구에서 보다 더 정밀하게 형식화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구문들이 제 1언어습득이나 외국어습득과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계되는지도 차후 별도의 연구과제가 될 것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 나양운(2014): Effects of Construction-Grammar-based Instruction on the Sentence Production Ability of Korean College Learners of English: 한국 대학생 영어학습자의 영어문장생성능력에 미치는 구문문법 기반교수의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국어교육과(영어전공) 박사학위논문.
- 성민창(2012): Effects of Instruction on the Learning of the English Transitive Resultative Construction by Korean Secondary School Students.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국어교육과(영어전공) 석사학위논문.
- Boas, Hans C. (ed.)(2010): Contrastive studies in Construction Grammar.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Boas, Hans C.(2013): Cognitive Construction Grammar. In: T. Hoffmann and G. Trousdale (eds.) The Oxford Handbook of Construction Gramma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33-254.
- Bresnan, J.(1994): 'Locative inversion and the architecture of universal grammar' Language 70, 72-131.
- Bresnan, J.(2001): Lexical-functional grammar. Oxford: Blackwell.
- Chomsky, N.(1989): 'Some notes on economy of derivation and representation' MIT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10, 43-74.
- Croft, W.(2001): Radical construction gramma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roft, W.(2007): 'Construction Grammar'. In Geeraerts, D. & Cuyckens, H. (eds.) The Oxford Handbook of Cognitive Linguistics. Oxford:

- Oxford Univ. Press.
- Dudenredaktion (Hrsg.)(2009): Duden: Die Grammatik. 8. Auflage. Mannheim / Leipzig / Wien / Zürich: Dudenverlag (= Duden, Band 4).
- Fillmore, C. J.(1982): 'Frame Semantics' In Linguistic Society of Korea (Ed.), Linguistics in the Morning Calm, 111-138. Seoul: Hanshin.
- Fillmore, C. J.(1999): 'Inversion and constructional inheritance' In Webelhuth, G., Koenig, J.-P. & Kathol, A. (eds.) Lexical and constructional aspects of linguistic explanation. Stanford: CSLI Publications. 113-28.
- Fillmore, C. J. & Kay, P.(1995): Construction grammar coursebook. Unpublished ms., Department of Linguistic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Fischer, K. & Stefanowitsch, A. (Hrsg.)(2007): Konstruktionsgrammatik: von der Anwendung zur Theorie. Tübingen: Stauffenburg Verlag.
- Goldberg, A.(1995): Constructions: a construction grammar approach to argument structur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oldberg, A.(2002): 'Surface generalizations: an alternative to alternations' Cognitive Linguistics 13, 327-56.
- Goldberg, A.(2006): Constructions at W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oldberg, A. & Jackendoff, R.(2004): 'The English resultative as a family of constructions' Language 80, 532-568.
- Haegeman, L.(1994): Introduction to Government & Binding Theory. Oxford: Blackwell.
- Havers, W.(1911): Untersuchungen zur Kasussyntax der indo-germanischen Sprachen. Straßburg: Verlag von Karl J. Trübner.
- Jackendoff, R.(1997). The architecture of the language faculty. Cambridge, MA: MIT Press.
- Kay, P. & Fillmore, C. J.(1999): Grammatical constructions and linguistic generalizations: The 'What's X doing Y?' Construction. Language 75, 1-33.
- Levin, B.(1993): English Verb Classes and Alternations: A Preliminary

- Investig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ichaelis, L. A.(2003): 'Word meaning, sentence meaning and syntactic meaning.' In Cuyckens, H., Dirven, R. & Taylor, J. (eds.) *Cognitive Approaches to Lexical Semantics*. Berlin & New York: Mouton de Gruyter.
- Michaelis, L. A.(2004): 'Type shifting in construction grammar: an integrated approach to aspectual coercion' *Cognitive Linguistics* 15,
- Michaelis, L. A.(2005): 'Entity and event coercion in a symbolic theory of syntax' In Östman, O. & Mirjam, F. (eds.) *Construction Grammars*.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 Michaelis, L. A.(2006): *Construction Grammar*. In: Brown, K. et al. (eds.)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Linguistics*. 2nd Ed. Vol. 3. Oxford: Elsevier. 73-84.
- Michaelis, L. A. & Lambrecht, K.(1996): 'Toward a construction-based theory of language function: the case of nominal extraposition' *Language* 72, 215-247. 1-67.
- Michaelis, L. A. & Ruppenhofer, J.(2001): *Beyond alternations: a constructional model of the German applicative pattern*. Stanford: CSLI Publications.
- Pollard, C. & Sag, I.(1994):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ag, I., & Wasow, T.(1999): *Syntactic Theory: A Formal Introduction*. Stanford: CSLI Publications.
- Sag, I., Wasow, T. & Bender, E.(2003): *Syntax: a formal introduction*. Stanford: CSLI Publications.
- Sells, P.(1985): *Lectures on Contemporary Syntactic Theories*. Stanford: CSLI.
- Seong, S. H.(2001): 'Transitivity parameter and prominence typology: a cross-linguistic study.' In Pütz, M., Niemeier, S. & Dirven, R. (eds.) *Applied Cognitive Linguistics I: Theory and Language Acquisition*. Berlin & New York: Mouton de Gruyter.
- Seong, S. H.(2006): 'Householder, Fred W., Jr. (1913-1994)'. In Brown, K. et

al. (eds.)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Linguistics. 2nd Ed. Vol. 5.
Oxford: Elsevier.

Van Valin, R. D. & LaPolla, R. J.(1997): Syntax: structure, meaning and
fun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Wildgen, W.(2008): Kognitive Grammatik. Berlin: de Gruyter.

■ Zusammenfassung

Die Prinzipien und die Problematik der Konstruktionsgrammatik - mit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Argumentstruktur im Deutschen und Englischen -

Seong, Sang Hwan (Seoul National Univ.)

In diesem Artikel wird die Prinzipien und die Problematik der Konstruktionsgrammatik anhand des Deutschen und Englischen analysiert. Der Begriff Konstruktionsgrammatik (construction grammar, CxG) bezieht sich auf grammatische Theorien oder Modelle, die davon ausgehen, dass die grundlegenden Einheiten der Grammatik nicht atomare syntaktische Einheiten und deren Kombinationsregeln sind, sondern sogenannte Konstruktionen. Die gesamte Grammatik einer Sprache besteht aus taxonomischen Hierarchien solcher Einheiten. Dieser Ansatz unterscheidet sich von der Generativen Grammatik, in der alle strukturellen Aspekte wie im Komponentenmodell über eine Vielzahl von Modulen verteilt sind (e.g., S-Struktur, D-Struktur, PF und LF etc.). In der CxG ist die grammatische Konstruktion anders als in der atomistischen und reduktionistischen Natur des Komponentenmodells der Generativen Grammatik eine Verbindung aus Form und Bedeutung (form-meaning pair). Der vorliegende Artikel diskutiert die verschiedenen grammatischen Konstruktionen des Deutschen und Englischen in Bezug auf die Argumentenstrukturen, in denen die Argumente nicht allein von den Prädikaten, sondern von den Konstruktionen lizenziert oder zugelassen werden. Insbesondere wird den empirischen und kognitiven Existenzberechtigungen verschiedener Konstruktionen (Resultativ- und Ditransitivkonstruktionen etc.) spezielle Aufmerksamkeit geschenkt und dabei auch auf die Unterschiede zwischen dem Deutschen und Englischen bei der Verwendung von (in)transitiven

Verben Bezug genommen.

핵심어

구문문법

논항구조

독일어, 영어구문

Stichwörter

Konstruktionsgrammatik

Argumentstruktur

Konstruktionen des Deutschen und Englischen

<논문투고일: 2014.06.30 논문심사일: 2014.09.15 게재확정일: 2014.09.17>